

[월비스 한국사]

박 민 주(민주국사) 교수

< 문항 분석 >				
출제영역	수	2019년	유형	난도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	—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구석기~철기)	1	• 부여	지문형	중하
고대 사회의 발전 (삼국~남북국)	3	• 법흥왕	사료형	중중
		• 고구려 대중국전쟁	서술형	중하
		• 골품제도	사료형	하하
중세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4	• 무신집권기 정치와 문화	서술형	하하
		• 원간섭기 국가체제	서술형	중하
		• 역사적 사건 순서	지문형	중상
		• 불교문화	서술형	중하
근세 사회의 발달 (조선 전기)	4	• 경국대전	사료형	하중
		• 중앙통치기구	서술형	하중
		• 초기 대외관계	서술형	하중
		• 초기 과전(科田)	서술형	하상
근대 사회의 태동 (조선 후기)	1	• 영조의 정책	지문형	중중
근대 사회의 전개 (구한말)	3	• 조·일수호조규	사료형	하중
		• 대한제국	서술형	중상
		• 국권 침탈 과정	지문형	중하
민족의 독립 운동 (일제시대)	2	• 신홍강습소	사료형	상하
		• 신간회	사료형	중하
현대 사회의 발전 (광복 전후~현대)	2	• 현대사 사건 순서	지문형	중하
		• 1960년대 경제 정책	서술형	하상

< 총 평 >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의 난도(난이도)는 고려나 현대사 일부 시대순 등 몇 문제를 제외하고 너무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기에 열심히 학습한 다수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허탈감을 느꼈으리라 본다. 결국 합격선은 90~95정도는 얻어야 하는 정도의 문제였기에 변별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사는 시행처에 따라 출제 난도의 편차가 크기에 이번 시험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단원과 유형을 파악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빈다.

민주국사 박민주

문1.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증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막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출제주제] 원간섭기 국가체제

[문제 해설] 답 ③

③ 원의 압력으로 격을 낮추어 증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6부를 4사로 통합하였다.① 몽골은 고려 전체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화주(영흥)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속령으로 편입하였고 최탄의 투항으로 자비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삼별조를 진압한 이후에는 제주도에도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였다.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고려 국왕이 원으로부터 받았으나 형식적인 존재였다.④ 대막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던 것은 고구려로 비상시에 해당된다.

민주국사 p. 323(정동행성 승상 수록)

문2.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ㄷ.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 ① ㄱ→ㄷ→ㄴ→ㄹ
- ② ㄴ→ㄷ→ㄱ→ㄹ
- ③ ㄷ→ㄱ→ㄹ→ㄴ
- ④ ㄹ→ㄷ→ㄱ→ㄴ

[출제주제]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

[문제 해설] 답 ③

③ ㄷ. 1차 한일협약(1904. 8)에 따라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파견되었다. → ㄱ. 을사늑약(2차 한일협약, 1905. 11) → ㄹ. 헤이그 특사 파견(1907. 6) → ㄴ. 한일신협약(1907. 7)

민주국사 p.1004~1006

◆ 국권 피탈 과정

1902. 1	제1차 영 일 동맹 – 러시아 견제책
1904	국외 중립 선언 – 러 일 전쟁
1904. 2	한 일 의정서 – 군사 기지 점유
1904. 8	제1차 한 일 협약 – 고문 정치(메가타, 스티븐스)
1905. 7	가쓰라태프트 밀약 –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인정
1905. 8	제2차 영 일 동맹 – 영국의 인도 지배 인정
1905. 9	포츠머스 조약 – 러시아의 일본 지배 마지막 인정
1905. 11	제2차 한 일 협약(을사늑약) – 통감 정치, 외교권 박탈
1907. 7	한 일 신협약(정미 7조약) – 차관 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 해산
1909. 7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1910. 6	경찰권 박탈
1910. 8	국권 강탈(총독 정치)

문3.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ㄹ.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출제주제] 법흥왕

[문제 해설] 답 ③

밑줄 친 ‘왕’ 은 금관가야를 복속시킨 법흥왕이다. ㄱ. 한화 정책을 추진했던 지증왕이다. ㄴ. 개국(開國), 대창(大昌), 홍제(鴻濟)의 연호를 사용한 왕은 진흥왕이다. ㅁ. 분황사와 영묘사,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한 왕은 선덕여왕이다.

민주국사 p. 128~131

문12.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남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출제주제] 골품제도

[문제 해설] 답 ④

④ 골품제도는 승진의 상한선이 골품에 따라 제한되었고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 ① 중앙 집권 국가(법흥왕) 발전기에 성립하였다.
- ② 후삼국 시대 무렵에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을 독점하였으나 모든 관등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국사 p. 182~185

문13.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출제주제] 부여

[문제 해설] 답 ④

④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加)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었다.

- ① 마한에서는 소와 말을 후장하였고 진한이나 변한에서는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여 죽은 이후 영혼이 하늘을 날아오르기를 기원하였다.
- ②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국동대혈에서 지냈다.
- ③ 삼한에서는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민주국사 p. 84, 87, 93

문 14.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현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현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출제주제]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

[문제 해설] 답 ③

③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과 서경 유수 조위충은 정중부 무신정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민주국사 p. 308

문 15.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출제주제] 현대사 역사적 사건

[문제 해설] 답 ①

ㄱ. 1947년 5월 이후
ㄴ. 1946년 7~10월
ㄷ. 1946년 6월
ㄹ. 1948년 2월

민주국사 p. 1172, 1175, 1176, 1177

문 16.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오.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법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출제주제] 신흥강습소

[문제 해설] 답 ①

① 1911년 이회영, 이상룡 등이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 강습소는 이듬해에 통화현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나중에 학교로 개편되었다.

② 연해주 지역에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였다.

③ 북간도에 1913년 간민회를 조직하였고 국권 침탈 이전에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1906년 이상설의 서전서숙과 1909년 김약연의 명동학교 등 학교를 통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복벽주의(전제군주제)는 1912년 임병찬 중심으로 독립의군부 등이 조직되었다.

민주국사 p. 1035, 1059, 1063, 1085

문 17.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출제주제]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

[문제 해설] 답 ④

④ 흥선대원군(고종) 대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행정권은 의정부가 군사권은 삼군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다.

민주국사 p. 837, 905~909

문18.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시켰다.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ㄴ→ㄹ
③ ㄴ→ㄱ→ㄷ→ㄹ
④ ㄴ→ㄹ→ㄱ→ㄷ

[출제주제] 고려시대의 사건

[문제 해설] 답 ④

④ ㄴ. 노비안검법(광종) → ㄹ. 시정전시과(경종) → ㄱ. 서희의 강동6주 설치(성종) → ㄷ. 서공이 편찬(인종)

민주국사 p. 286~288, 416

문19.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출제주제] 신간회

[문제 해설] 답 ②

②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구실로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신민회와 크리스티교를 탄압하였다.

민주국사 p. 1097~1098

▣ 신민회와 신간회

구 분	신민회(1907~1911)	신간회(1927~1931)
조 직	안창호, 김구, 신채호, 양기탁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비밀 결사 단체)	이상재 등 자치 운동에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합법 단체)
강 령	신민회의 4대 강령 ·국민에게 민족의식 독립사상의 고취 ·동지의 발견 단합으로 국민운동 역량의 축적 ·상공업 기관의 건설로 국민의 부력 증진 ·교육 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	3대 강령 ·기회주의의 배격 ·민족 단결의 촉구 ·정치 경제적 각성의 촉구
주 장 과 활 동	·주장 :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의 수립 ·활동 － 국내 : 문화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대성학교(안창호, 평양), 오산학교(이승훈, 정주) 건립과 태극서관(대구), 자기회사(평양)설립 － 국외 : 독립군 기지의 건설	·주장 : 한국어 교육 실시, 한국인 착취 기관의 철폐, 한국인 본위의 교육, 이민 정책의 반대, 한국인에 대한 특수 법규의 철폐, 과학 사상 연구의 자유(소년·부녀자의 노동 보호, 8시간 노동 최저 임금 노동권의 확립) ·활동 : 전국 순회강연(민족의식 식민 통치의 잔학상), 수재민 구호 운동, 재만 동포 옹호 운동, 농민 노동 학생 운동 지원(광주 학생 운동 시 진상 조사단 파견,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진상 규명 운동)
해 체	105인 사건	일제의 교묘한 탄압, 내부 이념 대립, 사회주의계에 대한 코만테론의 지시(자진 해산)

문20.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때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출제주제]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

[문제 해설] 답 ③

③ 과전(科田)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직산관)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한 것으로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민주국사 p. 542

